



# “LA올림픽 금메달 향해 뛰겠습니다”

장애인배드민턴 최연소 국가대표 뽑힌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흥후 선수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 LA 패럴림픽 금메달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2025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중 최연소 선수인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흥후(SL3·16·사진)가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이흥후는 지난달 7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내랭킹 1위이자 2024년 국가대표인 주동재(SL3·서울의료원)를 꺾고 단식 1위에 올라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동구스포츠클럽) 소속인 이흥후는 지난 2024년 차세대 장애인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치러진 기술평가를 통해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신인선수로 발탁됐다.

이흥후는 담양 수북중 재학 시절 배드민턴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광주 월봉중으로의 전학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장 180cm 이상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자랑하는 그는 2009년생으로 이번 선발 명단에 ‘최연소’로

랭킹 1위 꺾고 1위 올라 태극마크

담양서 배드민턴 위해 광주로 전학

향저우대회 최연소 이정수와 선발

“꾸준히 훈련해 목표 꼭 이루겠다”

이름을 올렸다.

이흥후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사했는데 선발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다”며 “당장 앞둔 대회 일정은 없지만, 2026년 일본에서 열리는 제5회 아이치-나고야 패러게임과 2028년 미국에서 열리는 제18회 로스앤젤레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큰 목표다. 지금처럼 꾸준히 훈련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흥후는 이정수(SU5·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와 2025년 국가대표에 동반 선발됐다. 두 사람

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형제 같은 사이다.

이정수는 코로나19여파로 2023년 열렸던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대표팀 ‘최연소’ 선수였다.

이흥후는 또 이정수에 이어 전대사대부고로 전학도 앞두고 있다.

이흥후는 “먼저 국가대표로 활약해 온 (이)정수 형이 항상 ‘성실히 훈련에 임하다보면 너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해준다”며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서로를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이정수와 의 ‘친형제 케미’를 자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9회 돌하르방배 추계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각각 SL3·SU5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정겨울과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유수영(이상 WH2·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도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지역 장애인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전남선수단 훈련 개시식...“전국체전 등 경기력 향상 다짐”

선수대표 선서·부패방지 결의문

유공자 39명 대통령·총리 표창

전남선수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2025년 준비를 본격화하며 각오를 다졌다.

전남도체육회는 23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2025 전남선수단 훈련 개시식’을 열고, 대회의 성공적 준비와 선전을 다짐했다.

훈련 개시식은 선수단 활동 및 성과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의 개식사, 선수대표 선서, 부패방지 및 (성)폭력 근절 결의문 낭독, 신년 각오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개식사에서 “지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한 단계 상승의 에너지를 밑거름 삼아,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며 “훈련 현장에 직접 찾아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훈련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수 대표 선서는 전남체육회 구구팀 조혜승과 목포시청 하키팀 조윤경이 맡았으며, 결의문은 순천대 양궁부 김문선 코치와 여수시청 롤러팀 박형상이 대표로 낭독했다.



전남선수단이 23일 전남체육회관에서 2025년 전라남도선수단 훈련개시식을 열고 올 시즌 각오를 다졌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신년각오는 전국체전 7연패에 도전하는 윤웅진(전남도청 우수)과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조성제 지도자가 발표했다.

전남 선수단은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한 주요 대회를 대비해 1월부터 동계 강화 훈련에 돌입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시식에 이어 정부포상 선수식도

열렸다. 앞서 전남에서 펼쳐졌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 39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포상이 수여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올해도 전남체육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선수들의 기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쇼트트랙 김길리·김태성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나란히 3관왕 올라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와 김태성(화성시청)이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나란히 3관왕에 올랐다.

여자 대표팀 에이스 김길리는 2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여자부 500m 결승에서 44초717의 기록으로 중국의 하오웨이잉(44초825)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이어 열린 혼성 2,000m 계주에서도 김건희(성남시청), 김태성, 이동현(단국대)과 함께 우승을 이끌었다.

전날 여자 1,500m에서 1위를 차지한 김길리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대회 3관왕이 됐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 김길리(가운데)가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결승에서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김태성도 남자 500m 결승에서 40초865의 기록으로 일본 미야타 쇼고(41초120)를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남자 1,500m에서 1위에 오른 김태성 역시

금메달 3개를 수신했다. 여자 500m에 출전한 서휘민(고려대)과 남자 500m에 나선 이동현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박현경 지난해 최고 시청률 견인 ‘흥행 스타’

연장 끝 윤이나 꺾어 명승부

박현경(사진)이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윤이나를 제치고 가장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은 흥행 스타로 나타났다.

KLPGA 투어는 지난해 대회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박현경이 최예림과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한 맥클·모나 용평 오픈이 대회 평균 시청률 0.72%를 찍어 31개 대회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23일 전했다.

가장 시청률이 높은 라운드도 맥클·모나 용평 오픈에서 나왔다.

이 대회 최종 라운드 시청률은 1.134%로 어떤 대회, 어떤 라운드보다 시청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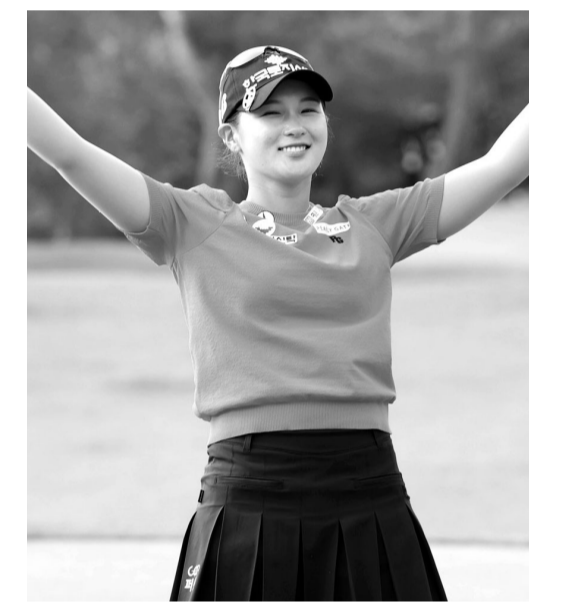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은 대회 역시 박현경이 연장전에서 우승한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이었다.

시청률 0.67%의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박현경은 박지영, 윤이나를 연장전에서 제치고 우승했다.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라운드 시청률 1.099%는 맥클·모나 용평 오픈 최종 라운드에 이어 시청률이 두 번째 높은 라운드였다.

순간 최고 시청률을 견인한 선수도 박현경이었다.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최종일에 박현경과



윤이나의 연장전이 치러진 오후 5시 22분의 순간 시청률은 2.712%까지 치솟아 가장 많은 시청자가 지켜본 1분으로 꼽혔다.

맥클·모나 용평 오픈 최종일 박현경과 최예림이 연장전을 벌이던 오후 4시 시청률은 2.047%로 뒤를 이었다.

KLPGA 투어는 2024년 대회 전체 평균 시청률은 0.419%로 2023년보다 24% 올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피겨 이해인, 동계체전 일반부 싱글 우승

남자 일반부 싱글 이시형 금메달

법적 다툼 속에 은만으로 돌아온 피겨스케이팅 이해인(고려대)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에서 우승했다.

이해인은 23일 강원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피겨 여자 일반부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8.66점, 예술점수(PCS) 61.28점을 합쳐 129.94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65.55점을 더한 최종 총점 195.49점으로 위서영(고려대·159.05점), 최다빈(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148.87점)을 제쳤다.

이해인은 지난 5월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불미스러운 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

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아 징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받았다.

징계 무효 확인 분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복귀한 이해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 출전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 출전권과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날 열린 남자 일반부 싱글에서 이시형(고려대)이 최종 총점 241.79점으로 금메달을 땀다.

올해 동계체전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고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은 사전 경기로 펼쳐졌다. /연합뉴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세보청기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